

연구논문

가부장가족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권력통제이론 변인에 대한 다양한 측정의 효과 분석**

The Effect of Patriarchal Family on Female Delinquency: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Variables from Power-Control Theory

신동준*

Dong-Joon Shin

이 연구는 권력통제이론의 시각에서 가부장가족을 측정하는 일련의 변인들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가부장적 태도와 여자청소년의 성평등 지향적 태도가 충돌하는 경우를 일종의 아노미적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이 여자청소년의 비행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의 여부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가부장가족 관련 변인들과 비행을 매개하는 변인들로 비행친구 수와 부모의 감시감독을 상정하고 인과관계의 고리를 해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부모의 직업에서 가부장적인 특징을 보이는 가정은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에서 가부장적인 특징을 보이는 가족은 지위비행에서 그러한 효과를 보였다. 부모의 가부장태도 자체로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자청소년 본인의 가부장적 태도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가능성을 낮추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부모는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자신은 성평등적 태도를 갖는 여자청소년은 지위비행과 중비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가부장 관련 변인들이 주로 비행친구 접촉을 통해서 여자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부모 직업에서 가부장적인 가족은 여자청소년에 대한 감시감독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비행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분석결과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가부장가족, 여자청소년, 비행, 권력통제이론, 가부장 아노미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patriarchal family on female delinquency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control theory, employing various measures for testing the theory. Extending power-control theory, this study measures the concept of

*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신동준.

E-mail: djshin@kookmin.ac.kr

'patriarchal anomie' which implies the situation where girls' progressive views on gender role are in conflict with parents' patriarchal values.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elinquent associations and the parental supervision are investigated. The results generally show that a series of variables on patriarchal famil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female delinquency. Specifically, the variables for patriarchal family measured in terms of parents' occupation and education level significantly decrease female delinquency. This study also finds that girls with patriarchal attitudes are less likely to be delinquent. However, girls with progressive views on gender role living with patriarchal parents are more likely to be delinquent. This study finds that the deterrent effects of patriarchal family as well as the facilitating effect of patriarchal anomie are mediated by delinquent association. And it reports that the variable of patriarchal family measured by parents' occupation decreases female delinquency through parental supervision.

Key words: patriarchal family, female delinquency, power-control theory, patriarchal anomie.

I. 머리말

그동안 여성과 여자청소년의 범죄 및 비행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었다. 물론 여전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여자청소년 비행의 양상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에 소년범 중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4.1%에 불과하였다(법무연수원 2000). 그러던 여자청소년의 소년범 비율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10.1%를 기록하였다가 최근에는 15%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19.6%로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법무연수원 2009). 전체 여성범죄의 추세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만 해도 6.5%에 불과하던 여성범죄자 비율은 1994년에 10.2%로 증가하던니 1999년에는 15.7%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법무연수원 2000). 그리고 최근까지도 대략 15%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법무연수원 2009).

많은 범죄학자들은 이렇게 여성 범죄와 여자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성역할과 가부장제와 관련된 사회변화에서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이른바 여성해방가설

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이론적 입장에서는 성평등 경향의 확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종전의 여성성의 관념에서 탈출하여 남성성의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Adler 1975; Simon 1975). 이러한 경향은 여자청소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권력통제이론(power-control theory)이 있다(Hagan et al. 1985, 1987).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여자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을 권력통제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권력통제이론에서는 여자청소년이 속한 가족이 가부장적인지 혹은 평등적인지가 여자청소년 비행의 설명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 이론에서는 부부의 권력관계에 따라 가부장가족과 평등가족이 구분되며, 이런 가족의 특성에 따라 자녀의 사회화와 사회통제가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이론의 검증을 위해서는 가부장가족과 평등가족을 어떻게 측정할지, 그리고 사회화와 사회통제의 과정을 어떻게 개념화하여 측정할지가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이 연구는 권력통제이론으로부터 직접적 내지는 간접적으로 도출되는 변인들의 측정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효과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권력통제이론이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도 타당성을 갖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우선 가부장가족과 평등가족을 구조적으로 측정하는 변인들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가부장제와 성역할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여자청소년 본인들의 태도가 실제로 비행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겠다. 그리고 부모의 가부장적 태도와 여자청소년의 성평등 지향적 태도가 충돌하는 경우를 일종의 아노미적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이 여자청소년의 비행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도 경험적으로 확인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가부장/성평등 변인들과 비행을 매개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자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검토

1. 권력통제이론과 이론검증을 위한 측정들

헤이건과 그의 동료들은 가족에서 부모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자녀들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통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권력통제이론을 통해서 제시하였다(Hagan et al. 1985, 1987, 1990). 권력통제이론은 직장에서의 계급 구분을 가족 내의 부부권력관계

로 연결시키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 통제라는 기제를 통해 비행의 성차를 설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가정 내 사회통제 노동의 분업에서 나타나는 성 계층화’가 계급과 청소년비행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적 인과고리라는 것이다(Hagan et al. 1990: 1025). 이 이론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직장에서 갖는 계급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가부장 가족과 평등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가부장가족은 직장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을 아버지는 갖고 있는 반면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헤이건과 그의 동료들은 남편이 직장에서 권위를 갖는 지위에 있는 반면 아내는 가정 밖의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소비와 생산의 영역이 성별에 따라 분리된 경우가 전형적인 가부장가족이라고 보았다(Hagan et al. 1987: 791). 반면 평등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적 지위가 동등하여 소비와 생산의 성별 분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부부 간의 권력관계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경우이다. 권력통제이론에서는 가부장가족에서보다 평등가족에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정도의 차이가 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권력통제이론에 따르면 가부장가족에서는 주로 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성별에 따른 생산 영역과 소비 영역의 분리가 자녀들에게도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데, 아들은 생산의 영역(직장)에 맞게, 딸은 소비의 영역(가정)에 맞게 사회화되면서 그러한 성역할에 따라 딸에게 통제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도구-대상(instrument-object) 관계’라는 도식에 의거하여 가부장가족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권력을 매개하는 도구가 되어 자식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게 되고, 그 통제의 주된 대상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권력통제이론은 주장한다(Hagan et al. 1985: 1156). 따라서 가부장가족의 딸들은 어머니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비행과 같은 위험하고 처벌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회피하고 조심하게 행동하도록 사회화된다고 본다. 반면 평등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권력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딸들에게 행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딸은 아들과 비슷한 정도의 통제를 받고 유사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등가족에서 딸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평등가족의 딸들은 비행의 가능성에 있어서 아들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 권력통제이론이 제시되었을 때 가부장가족과 평등가족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계급과 성별이 비행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효과에 주로 주목하였다(Hagan et al. 1985). 그래서 이론의 검증을 위해서 가장의 계급을 측정하고 출신 계급별로 청소년의 성별이 비행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장의 계급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에 준하여 고용주, 관리자, 노동자,

실업 노동자(잉여인구)의 네 가지 계급범주로 측정되었다. 이후에 가족 내에서의 계급 관계에 주목하면서 좀더 정교화된 권력통제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가부장가족과 평등가족 개념이 이론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Hagan et al. 1987).

이 연구에서는 우선 부모의 직업적 권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음 단계로 부모 모두가 직장에서 권위를 갖는 경우와 부모 모두 직장에서 권위를 갖지 않는 경우를 평등가족으로, 아버지는 직장에서 권위를 갖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거나 직업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가부장가족으로 분류함으로써 해당 개념을 측정하였다. 이후에 권력통제 이론을 검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측정 전략을 따르고 있다(Singer & Levine 1988; Jensen & Thompson 1990; Grasmick et al. 1996; Blackwell 2000).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력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직장에서 부모의 권력 정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가부장가족 혹은 평등가족을 측정하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확인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권력통제이론의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 부부의 권력관계를 직장에서의 계급적 지위로만 측정한 것은 아니다. 헤이건과 동료들의 1990년 연구에서는 부부권력을 가정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로 누가 갖는지 혹은 누구 위주로 가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와 관련된 문항들로 측정하여 가부장가족 여부를 판단하였다(Hagan et al. 1990). 후속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가부장가족과 평등가족의 측정을 부부의 계급에 따른 구조적 형식이 아닌 가부장적 태도와 관련된 실제 내용의 측면에서 시도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그래스미크와 동료들(Grasmick et al. 1996)은 어머니가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 딸들의 독립과 직업경력, 배우자의 가사분담 등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들을 통해서 부모의 가부장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맥카시와 동료들(McCarthy et al. 1999) 역시 어머니가 직장을 갖는 것, 딸의 독립성, 집안에서의 가사분담, 가족의 의사결정 등 성역할과 관련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응답자 자신의 태도 측정에 활용하였다.

2. 기존연구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력통제이론은 기본적으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정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권력통제이론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대부분 가부장가족과 평등가족에서 성별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일부 연구들은 권력통제이론의 예측이 부분적으로 맞지 않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Singer & Levine 1988; Hill & Atkinson 1988; Jensen & Thomson 1990; Morash & Chesney-Lind 1991; Grasmick et al. 1996).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이 권력통제이론의 논리에 의거하여 여자청소년의 비행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으로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다(이성식·전신현 2001: 179). 즉 권력통제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가부장가족의 여자청소년에 비해서 평등가족의 여자청소년이 비행을 더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평등가족의 백인 여자청소년이 가부장가족의 여자청소년보다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가 있다(McCarthy et al. 1999).

국내에서도 권력통제이론에 근거하여 여자청소년 비행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이성식·전신현 2001; 김정규 2009). 이성식·전신현(2001)의 연구에서는 권력통제이론에 따라 가부장가족의 여자청소년이 평등가족의 여자청소년보다 비행을 덜 저지를 것이라고 보는 가설뿐만 아니라 가부장가족의 여자청소년이 오히려 비행을 더 저지를 것이라는 가설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두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가부장가족의 여자청소년은 억압적인 가정 분위기 때문에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어 비행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비행 유발적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료의 분석 결과 이 연구는 권력통제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가부장가족 출신 여자청소년들의 비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가부장가족에서 여자청소년이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고 부모와 갈등을 빚음으로 해서 가출을 하거나 비행친구와 접촉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는지를 질문하는 두 가지 설문항목(‘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꼼짝 못하실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하다’,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든 여자보다는 남자 우선으로 한다’)을 사용하여 가부장가족을 측정하였다. 김정규(2005)는 이러한 측정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로 가부장가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권력통제이론이 애초에 제시했던 구조적 형태의 가부장가족과 평등가족의 구분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규(2009)는 아내와 남편의 상대적 수입을 통해서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측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부장가족이 남자청소년의 비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비행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권력통제이론

이 지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요인을 측정하는 다른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성식·전신현(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거의 유사한 항목들을 사용하여 구성된 가부장적 권력관계 지표였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 개인이 가부장적 특성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부장적 권력관계 지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의 비행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가부장적 성향을 가진 남자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가부장적 성향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여자청소년 비행에 대한 가부장가족의 일관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식·전신현(2001)의 연구에서는 가부장가족의 여자청소년이 오히려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보고한 반면, 김정규(2009)의 연구에서는 권력통제이론의 예측과 같이 가부장가족의 여자청소년이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가부장가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부장가족에 대한 다양한 측정을 통해서 각각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전통적으로 범죄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가부장적 특징의 효과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가부장적 특징들이 그러한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권력통제이론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제안하고 있다(김정규 2009: 161). 위에서 검토한 연구들에서도 가부장가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매개변인은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헤이건과 그의 동료들도 권력통제이론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간주하였던 부모의 통제이다(Hagan et al. 1985, 1987, 1990; 이성식 1999: 209-211). 물론 권력통제이론에서는 어머니의 통제가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지만, 보통 아버지의 통제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해 왔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통제의 유의미한 효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Hill & Atkinson 1988; Morash & Chesney-Lind 1991; Grasmick et al. 1996). 그리고 몇몇 권력통제이론 관련 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으며(이성식·전신현 2001; 김정규 2009; Singer & Levine 1988), 전통적으로 차별접촉이론(Sutherland & Cressey 1966)과 관련된 변인으로 자주 연구에 활용되는 비행친구 접촉

을 들 수 있다(이성식 1999: 2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 두 가지 차원의 변인들에 가부장가족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여자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로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성식·전신현(2001)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가부장가족은 오히려 비행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입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은 가족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여자청소년에게 갈등과 긴장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이론적 설명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족에서의 사회화가 갖는 커다란 영향력에 비춰 보았을 때 가부장가족에서 자란 여자청소년은 가부장적 태도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이 아무리 가부장적일지라도 여자청소년의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여자청소년의 성역할 태도와 부모의 성역할 태도가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대립이 발생하여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할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부모는 가부장적 태도를 갖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성평등적 태도를 보일 경우일 것이다. 이것은 성역할과 가부장적 가치의 측면에서 일종의 아노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이 그러한 태도와 가치를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 밖의 사회를 통해 내면화했을 것이고, 이는 가부장적인 사회의 기존 측면과 성평등적인 사회의 새로운 조류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규범적으로 충돌하는 아노미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특히 성역할과 가부장적 가치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기성세대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가부장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반면 사회의 변화에 민감한, 특히 여자청소년들은 성평등적 태도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반긴장이론의 논리에 따르면(Agnew 1985, 1992; Agnew & White 1992) 가부장가족은 여자청소년에게 갈등과 긴장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비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른바 ‘가부장 아노미’가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이 연구에서는 함께 살펴보려 한다.

III. 자료와 변인

이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 통해서 제공된 「여자청소년 비행실태에 관한 조사」 자료이다(김준호 1994).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자청소년의 비행 실

태와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한 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다(김준호·김은경 1995). 이 자료의 특성은 표본에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1,124명), 수용시설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따로 표집하여 표본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346명).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표집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비행 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이 충분히 표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수용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의 표본에서 여자가 45.1%나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히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김준호·김은경 1995: 59). 1994년의 자료로 다소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상과 같은 해당 자료의 장점과 함께 가부장제와 성역할에 대한 다양한 설문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부장가족과 관련된 지표를 구성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이 여자청소년 비행의 현황 파악이 아니라 이론의 검증에 있기 때문에 다소 오래된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고등학생 표본은 『서울교육통계연보(1993)』에 기초하여 학교유형별 학생 비율에 따라 남녀 인문계 주간고등학교 각 7개교, 남녀 실업계 주간 고등학교 각 2개교, 그리고 남녀 인문계 야간고등학교 각 1개교와 남녀 실업계 야간고등학교 각 1개교, 총 22개교를 교육행정구역별로 할당표집하였다(김준호·김은경 1995: 57). 설문조사는 각 학교의 1개 학급에서 집단면접 및 자기기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용시설원생 표본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은 당시 서울소년원과 서울감별소, 여자청소년은 안양소년원, 서울감별소, 그리고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전에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집단면접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김준호·김은경 1995: 58).

가족의 가부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헤이건 등에 의해서 애초에 제시되었던 구조적(계급과 직업) 차원과 함께 문화적(태도)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 권력통제이론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Grasmick et al. 1996: 194). 이후 수정된 권력통제이론에 대한 논의에서도 가부장적 문화의 차원을 나타내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 도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McCarthy et al. 1999: 768).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가부장가족에 대한 구조적 측정과 문화적 측정들을 5가지로 구성하고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두 가지는 가부장가족을 구조적 차원에서 측정할 변인이다.

첫째로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가부장가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묻는 항목을 토대로 하여, 어머니가 가정주부인 경우에 가부장가족으로 코딩되고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평등가족으로 코딩되도록 변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정주부일지라도 아버지가 실업 상태인 경우에도 평등가족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물론 권력통제이론에서 원래 제안하였던 것과 같이 부모의 직업적 권위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해당 변인을 구성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이 변인은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에서는 부모의 직종을 묻고 있고 이렇게 측정된 직업의 범주들을 통해서 직업적 권위의 차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와 같이 변인을 측정하였고, 1990년대 중반의 한국적 상황에서 보았을 때 권력통제이론이 상정한 가부장가족의 구조라는 개념의 측정방법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학력수준 차이를 통해서 가부장가족 여부를 측정한 변인을 구성하였다. 해당 데이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각각 서열적으로 측정되었는데(1=무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 ..., 6=대학원 이상), 이렇게 측정된 아버지의 학력에서 어머니의 학력을 빼도록 변인을 계산하여 값이 클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변인의 값이 클수록 가부장가족의 특징이 강한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평등가족의 특징이 강한 것으로 조작화한 것이다. 학력이 중시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교육수준의 차이를 통해서 부모의 권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부장가족과 평등가족에 대한 적절한 대안적 측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측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였다(김정규 2005: 171).

세 번째 변인은 부모의 가부장적 태도이다. 이는 해당 자료에서 성역할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묻는 일련의 항목들을 요인분석하여 첫 번째 요인으로 묶이는 항목들을 통해 계산된 요인점수를 변인화한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아들을 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 집에서 좋은 것은 남자가 우선이다’, ‘우리 집에서는 아들과 딸을 차별한다’, ‘우리 부모님은 아들이 딸보다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여기신다’, ‘우리 부모님은 아들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우리 집에서는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시킬 때 여자일, 남자일을 구분해서 시켰다’, ‘우리 부모님은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 잘 만나는 게 최고라고 말씀하신다’라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이상의 7가지 항목이 부모의 가부장적 태도 변인을 구성한다.

네 번째 변인은 여자청소년 본인의 가부장적 태도로서, 청소년 자신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묻는 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역시 첫 번째 요인으로 묶인 항목들로 계산된 요인점수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공직은 여성에게도 똑같이 개방되어야 한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직업에 대한 훈련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모든 직업세계에서 남녀의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능력이 비슷한 남녀가 있는 직장에서는 남자가 상급자가 되는 편이 낫다’, ‘여자는 앞에 나서기보다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자기주장이 강한 여자는 여자답지 못하다’,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집안일을 하는 가정이 이상적이다’, ‘여자는 활동적이기보다는 암전하고 정숙해야 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딸보다는 아들을 상급학교에 진학시켜야 한다’, ‘남자의 순결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자의 순결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 13개 항목으로 변인이 구성되었다. 이 항목들 역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 아노미를 측정하기 위해서 앞서 소개한 두 개의 변인인 ‘부모의 가부장태도’와 여자청소년 자신의 ‘가부장태도’를 활용하였다. 요인점수화한 이 두 변인은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전체 표본에서는 평균값 0을 갖는다. 따라서 ‘부모의 가부장태도’는 평균보다 큰 점수를 가지면서 여자청소년 개인의 ‘가부장태도’는 평균보다 작은 점수를 갖는 경우에 가부장 아노미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코딩하였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태도 측면에서는 가부장적 특징을 보이는 가정의 여자청소년이 성평등 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될 때 이른바 ‘가부장 아노미’를 경험할 것이라는 점을 변인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통제이론과 차별접촉이론에 근거하여 중요한 통제변인 및 매개변인 4개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우선 가족통제와 관련하여 3개의 변인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해당 데이터에서 가정 분위기를 묻는 일련의 5점 척도 항목들을 요인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인점수를 변인화하여 구성되었다. 우선 첫 번째 요인으로 묶인 항목들은 우리집 식구들은 ‘서로 미워하는 것 같다’, ‘서로 믿지 못한다’, ‘서로 화목하고 정답게 지내고 있다’,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나와 우리집 식구들과의 관계는 만족스러운 편이다’, ‘우리 집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상 6가지이다. 이는 전반적인 ‘가족 유대’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부모의 '감시감독'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 '외출할 때 부모님은 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을 알고 계신다', '일이 있어 집에 늦게 올 때에는 항상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허락을 받는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다 아신다', '나는 나의 생활상의 문제나 장래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자주 의논하는 편이다' 이상 6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나는 부모님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친구들보다는 부모님과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 3가지 항목이 '부모애착'이라는 변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비행친구의 수는 근신/정학, 음주/흡연, 가출/무단결석, 절도/돈 뺏기, 패싸움/타인폭행, 이성과의 성관계, 그리고 약물경험과 연관된 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서열척도를 평균한 값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연령, 등수로 측정한 학교성적, 그리고 가정생활 수준이 기본적인 통제변인으로 모형에 사용되었다.

중속변인인 비행행위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3개의 변인으로 구성하여 각각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첫 번째 요인으로 묶인 항목은 '출입금지의 극장이나 디스코장, 노래방, 술집 등에 간다',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음란서적이나 음란비디오를 본다', 이상 4개로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변인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요인에 포함된 항목은 '가게에서 슬쩍 물건을 훔친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다', '남의 차에 흠을 내거나 남의 물건에 손상을 입힌다',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한다', '공중전화박스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낙서한다' 이상 5개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비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심각한 비행'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환각제나 본드, 약물을 남용한다', '남을 흉기로 해친다', '가출을 한다', '남을 심하게 때린다',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한다' 이상 5개의 항목이 하나로 묶였다.

이상의 분석에 사용될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자료를 사용하였지만(N=1,470), 회귀분석에서는 해당 자료에서 표본 중 여자청소년들만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N=768) 여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수치들을 제시하였다.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N = 768)

변인	평균	표준편차	범위
연령	16.56	.92	13~20
학교성적: 등수	22.37	13.08	1~60
가족유대	-.03	1.04	-3.71~1.56
감시감독	.15	1.04	-2.48~2.33
부모애착	-.11	1.05	-3.54~1.62
비행친구 수	.78	1.07	0~4
가부장태도	.64	.71	-2.06~1.64
부모의 가부장태도	.23	1.07	-2.63~2.23
가부장가족: 학력	.43	.79	-3~4
지위비행	-.16	1.00	-1.93~2.61
경비행	-.26	.86	-2.44~4.58
중비행	.08	.91	-2.33~5.99
	범주: 부호	빈도	퍼센트(%)
가정생활수준	상층:5	11	1.4
	중상층:4	484	63.0
	중하층:3	247	32.2
	하층:2	20	2.6
	극빈층:1	6	.8
가부장가족: 직업	가부장가족:1	467	60.8
	평등가족:0	301	39.2
가부장 아노미	아노미 상황:1	76	9.9
	이외 상황:0	692	90.1

<표 2>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가부장가족의 효과: 부모 직업

	지위비행	경비행	중비행
상수	-2.402***	1.438*	1.190
연령	.101(.039)***	-.115(-.119)**	-.088(-.087)*
생활수준	.050(.030)	.003(.002)	.086(.056)
학교성적	.029(.369)***	.011(.160)***	.015(.213)***
가부장: 직업	-.234(-.113)***	-.055(-.030)	-.278(-.143)***
N	656	656	656
수정된 R ²	.159	.041	.091

* p<.05, ** p<.01, *** p<.001; ()안은 표준화 계수.

IV. 분석결과

1. 부모의 직업을 통해 측정된 가부장가족 변인의 효과

우선 가부장가족을 부모의 직업을 통해 측정한 변인이 3가지 유형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2>는 기본적인 통제변인들을 모형에 포함한 상태에서 부모의 직업을 통해서 측정된 가부장가족이 지위비행과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OLS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가부장가족의 여자청소년이 지위비행을 덜 저지르고, 중비행 역시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정계수(R^2) 값은 지위비행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약 16%로 가장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제변인 중에서 등수로 측정된 학교성적은 모든 유형의 비행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좋은 여자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덜 저지른다는 것이다. 표준화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모든 유형의 비행에서 그 효과가 가장 컸다. 이는 사회유대이론에서 중요한 비행 통제요인들 중 하나로 언급되는 참여(involvement)나 관여(committment)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Hirschi 1969). 학업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학생들은 비행과 같은 행위를 저지를 여력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학업에 투자한 만큼 비행을 저질러서 현재와 미래에 큰 손실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령 변수도 역시 모든 유형의 비행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만, 그 방향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지위비행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반면, 경비행과 중비행은 오히려 나이가 적을수록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직업으로 측정된 가부장가족 변인의 효과를 가족통제 변인들과 비행친구 수 변인들을 모형에 포함하여 비행유형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3>은 지위비행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영향을 보여준다. 우선 가족통제 변인인 ‘가족유대,’ ‘감시감독,’ 그리고 ‘부모애착’은 모두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5에서 보듯이 ‘비행친구의 수’는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 정도를 높인다. 주목할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던 ‘가부장: 직업’의 효과가 부모의 감시감독과 비행친구의 수를 통제했을 때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 이외의 모형에서는 ‘가부장: 직업’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위비행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가부장가족의 효과: 부모 직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 수	-2.402***	-2.182***	-1.580*	-2.255***	-2.742***
연 령	.101*** (.039)	.097** (.090)	.075* (.068)	.098** (.091)	.120*** (.111)
생활수준	.050 (.030)	-.008 (-.005)	-.059 (-.035)	.020 (.012)	.005 (.003)
학교성적	.029*** (.369)	.026*** (.337)	.021*** (.274)	.025*** (.322)	.008*** (.105)
가부장: 직업	-.234*** (-.113)	-.184* (-.089)	-.125 (-.060)	-.202** (-.097)	-.055 (-.026)
가족유대		-.178*** (-.186)			
감시감독			-.385*** (-.403)		
부모애착				-.216*** (-.227)	
비행친구 수					.568*** (.621)
N	656	656	615	656	651
수정된 R ²	.159	.188	.306	.206	.457

* p<.05, ** p<.01, *** p<.001, ()안은 표준화 계수.

한편 〈표 4〉의 모형 3에서 볼 수 있듯이 중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감시감독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가부장: 직업’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다른 가족통제 변인들과는 달리 ‘감시감독’의 효과는 중비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행친구 수’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이 변인을 통제했을 때 역시 가부장가족의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과 관련해서 〈표 3〉와 〈표 4〉를 비교해 보면, 중비행에서보다 지위비행에서 모든 모형의 결정계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표 4〉 여자청소년의 중비행에 미치는 가부장가족의 효과: 부모 직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 수	1.190	1.283 *	1.731 **	1.244	.752
연 령	-.088 * (-.087)	-.090 * (-.089)	-.121 *** (-.124)	-.089 * (-.088)	-.062 (-.061)
생활수준	.086 (.056)	.061 (.040)	.096 (.065)	.075 (.048)	.041 (.026)
학교성적	.015 *** (.213)	.014 *** (.199)	.013 *** (.185)	.014 *** (.194)	-.004 (.003)
가부장: 직업	-.278 *** (-.143)	-.257 *** (-.132)	-.277 *** (-.152)	-.266 *** (-.137)	-.106 (-.054)
가족유대		-.076 * (-.084)			
감시감독			-.040 (-.047)		
부모애착				-.080 * (-.090)	
비행친구 수					.522 *** (.608)
N	656	656	615	656	651
수정된 R^2	.091	.096	.103	.104	.371

* $p < .05$, ** $p < .01$, *** $p < .001$, ()안은 표준화 계수.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가부장가족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단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직업적 차이로 측정했을 때 가부장적 구조를 보이는 가족은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 정도를 일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권력통제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그러나 부모의 감시감독을 통제했을 때 지위비행의 경우 그 효과가 사라졌다. 셋째, 비행친구 수를 통제했을 때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에서 가부장가족의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가부장가족의 효과가 부모의 감시감독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해서 매개된다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표 5> 여자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가부장가족의 효과: 부모 학력

	지위비행	경비행	중비행
상 수	-2.518***	1.303*	1.065
연 령	.096(.039)*	-.109(-.113)**	-.094(-.094)*
생활수준	.085(.052)	.001(.001)	.105(.068)
학교성적	.029(.384)***	.011(.165)***	.017(.235)***
가부장: 학력	-.141(-.113)**	.004(.004)	-.068(-.058)
N	641	641	641
수정된 R ²	.161	.039	.077

* p<.05, ** p<.01, *** p<.001, ()안은 표준화 계수.

<표 6>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가부장가족의 효과: 부모 학력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 수	-2.518***	-2.295***	-1.703**	-2.361***	-2.773***
연 령	.096* (.039)	.095* (.089)	.081* (.074)	.096* (.090)	.119*** (.110)
생활수준	.085 (.052)	.019 (.011)	-.066 (-.039)	.048 (.030)	.023 (.014)
학교성적	.029*** (.384)	.027*** (.347)	.022*** (.283)	.026*** (.335)	.009*** (.113)
가부장: 학력	-.141** (-.113)	-.124** (-.099)	-.147*** (-.117)	-.140** (-.112)	-.049 (-.039)
가족유대		-.184*** (-.194)			
감시감독			-.385*** (-.402)		
부모애착				-.212*** (-.224)	
비행친구 수					.558*** (.611)
N	641	641	606	641	636
수정된 R ²	.161	.194	.319	.207	.451

* p<.05, ** p<.01, *** p<.001; ()안은 표준화 계수.

2. 부모의 학력을 통해 측정한 가부장가족 변인의 효과

다음으로 가부장가족을 또 다른 구조적 기준인 부모의 학력차이를 통해서 측정한 변인의 효과를 <표 5>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가부장: 학력’은 지위비행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역시 권력통제이론의 예측과 같이 가부장가족의 여자청소년이 지위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결과를 토대로 ‘가부장: 학력’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표 6>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가족통제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가부장가족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가부장: 직업’의 효과를 살펴본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행친구의 수를 통제했을 때 가부장가족의 효과는 사라짐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가부장적 태도를 통해 측정한 가부장가족 변인의 효과

다음으로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가부장가족을 측정한 변인인 ‘부모의 가부장태도’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7>에 따르면 이렇게 측정된 가부장가족 변인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권력통제이론의 예측과 어긋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가부장가족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이성식과 전신현(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결과는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부모가 가부장적 태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여자청소년 역시 그러한 부모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사회화했다면 부모의 이러한 태도가 여자청소년의 비행 정도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청소년이 성평등적 태도를 내면화 했을 경우에는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여 여자청소년의 비행성향을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자청소년 본인의 가부장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가부장태도만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이른바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고, 그에 앞서 우선 여자청소년 본인의 가부장태도가 갖는 효과를 분석해 볼 것이다.

〈표 7〉 여자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가부장가족의 효과: 부모의 가부장태도

	지위비행	경비행	중비행
상 수	-2.475***	1.546*	.979
연 령	.094(.087)*	-.121(-.125)***	-.094(-.093)*
생활수준	.062(.038)	-.009(-.006)	.126(.081)*
학교성적	.029(.381)***	.011(.156)***	.017(.232)***
부모의 가부장태도	-.034(-.036)	-.061(-.072)	.030(.034)
N	655	655	655
수정된 R ²	.150	.046	.073

* p<.05, ** p<.01, *** p<.001, ()안은 표준화 계수.

〈표 8〉 여자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본인의 가부장태도의 효과

	지위비행	경비행	중비행
상 수	-2.405***	1.363*	1.221
연 령	.098(.091)*	-.118(-.122)**	-.091(-.089)*
생활수준	.057(.035)	.017(.012)	.088(.057)
학교성적	.028(.365)***	.012(.171)***	.015(.203)***
가부장태도	-.160(-.110)**	.066(.051)	-.239(-.175)***
N	656	656	656
수정된 R ²	.158	.043	.101

* p<.05, ** p<.01, *** p<.001, ()안은 표준화 계수.

4. 여자청소년의 가부장태도의 효과

〈표 8〉에 따르면 구조적 차원에서 측정된 이전의 가부장가족의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가부장: 직업’의 효과와 비슷하게 지위비행과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가부장태도를 보이는 여자청소년이 이러한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평등적 지향을 갖는 여자청소년이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것으로 권력통제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9〉는 지위비행에 미치는 가부장태도의 효과를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이다. ‘가부장: 직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점이 눈에 띈다. 가부장적 태도를 갖는 여자청소년일수록 지위비행을 덜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모형 3과 모형 5에서 나타나듯이 부모의 감시감독을 통제했을 때와 비행친구의 수를 통제했을 때 사라진다.

한편 중비행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감시감독을 통제했을 때에도 가부장태도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오히려 부모의 감시감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비행친구의 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여자청소년 본인의 가부장태도가 중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비행친구의 수를 통해서 매개되지 않는 가부장태도의 직접적인 영향이 중비행의 정도에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비행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갖는 가부장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부모의 감시감독 효과가 중비행의 경우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앞서 <표 4>에서 ‘가부장: 직업’의 효과를 보는 모형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의 감시감독은 여자청소년의 심각한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본인의 가부장태도의 효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 수	-2.405***	-2.165***	-1.588*	-2.230***	-2.745***
연 령	.098* (.091)	.095* (.088)	.073 (.066)	.097* (.089)	.119*** (.110)
생활수준	.057 (.035)	-.006 (-.004)	-.050 (-.030)	.021 (.013)	.007 (.004)
학교성적	.028*** (.365)	.026*** (.330)	.021*** (.272)	.024*** (.313)	.008** (.105)
가부장태도	-.160** (-.110)	-.143** (-.099)	-.089 (-.059)	-.167*** (-.115)	-.032 (-.022)
가족유대		-.184*** (-.191)			
감시감독			-.388*** (-.405)		
부모애착				-.225*** (-.236)	
비행친구 수					.569*** (.621)
N	656	656	615	656	651
수정된 R ²	.158	.190	.306	.209	.457

* p<.05, ** p<.01, *** p<.001, ()안은 표준화 계수.

〈표 10〉 여자청소년의 중비행에 미치는 본인의 가부장태도의 효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 수	1.221	1.328*	1.711	1.293*	.793
연 령	-.091* (-.089)	-.092* (-.091)	-.124*** (-.128)	-.091* (-.090)	-.063* (-.061)
생활수준	.088 (.057)	.060 (.039)	.115* (.077)	.073 (.048)	.038 (.024)
학교성적	.015*** (.203)	.014*** (.186)	.012*** (.179)	.013*** (.180)	-.004 (-.055)
가부장태도	-.239*** (-.175)	-.232*** (-.170)	-.195*** (-.147)	-.242*** (-.178)	-.123** (-.090)
가족유대		-.082* (-.091)			
감시감독			-.046 (-.054)		
부모애착				-.092** (-.103)	
비행친구 수					.517*** (.602)
N	656	656	615	656	651
수정된 R ²	.101	.107	.109	.110	.375

* p<.05, ** p<.01, *** p<.001, ()안은 표준화 계수.

5.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

마지막으로 ‘가부장 아노미’가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가부장적 태도를 갖지만 여자청소년 본인은 성평등적 태도를 갖는 상황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가부장적 태도와 관련된 아노미적 상황이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해석해 보면, 가부장가족은 일반적으로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여자청소년 본인의 태도와 부모의 가부장적 태도가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여자청소년의 비행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권력통제이론을 확장해서 여자청소년 비행의 설명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도 각 비행 유형별로 가족통제 변인들과 비행친구 수 변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면서 각 모형별로 좀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다.

〈표 11〉 여자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

	지위비행	경비행	중비행
상 수	-2.723***	1.518*	.842
연 령	.106(.098)**	-.123(-.127)***	-.084(-.083)*
생활수준	.071(.043)	.012(.008)	.112(.073)
학교성적	.029(.375)***	.012(.166)***	.016(.223)***
가부장 아노미	.321(.095)**	-.171(-.056)	.327(.103)**
N	656	656	656
수정된 R^2	.155	.044	.082

* $p < .05$, ** $p < .01$, *** $p < .001$, ()안은 표준화 계수.

〈표 12〉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 수	-2.723***	-2.474***	-1.802**	-2.581***	-2.826***
연 령	.106** (.098)	.104** (.097)	.081* (.073)	.106** (.098)	.122*** (.112)
생활수준	.071 (.043)	.002 (.001)	-.047 (-.028)	.035 (.021)	.010 (.006)
학교성적	.029*** (.375)	.026*** (.337)	.021*** (.275)	.025*** (.323)	.008*** (.106)
가부장 아노미	.321** (.095)	.349** (.103)	.215 (.061)	.370** (.109)	.089 (.026)
가족유대		-.194*** (-.202)			
감시감독			-.392*** (-.409)		
부모애착				-.229*** (-.240)	
비행친구 수					.569*** (.622)
N	656	656	615	656	651
수정된 R^2	.155	.191	.312	.208	.457

* $p < .05$, ** $p < .01$, *** $p < .001$, ()안은 표준화 계수.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지위비행의 경우 부모의 감시감독과 비행친구 수를 통제했을 경우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가 사라짐으로써 이전의 결과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중비행의 경우에도 비행친구 수를 통제했을 때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가 사라지지만, 지위비행의 경우와는 달리 부모의 감시감독을 통제해도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표 13〉은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감시감독은 여자청소년의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표 13〉 여자청소년의 중비행에 미치는 가부장 아노미의 효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상 수	.842	.966	1.417 [*]	.901	.620
연 령	-.084 [*] (-.083)	-.085 [*] (-.084)	-.118 ^{**} (-.121)	-.084 [*] (-.083)	-.061 (-.059)
생활수준	.112 (.073)	.078 (.050)	.120 [*] (.080)	.097 (.063)	.050 (.032)
학교성적	.016 ^{***} (.223)	.015 ^{***} (.202)	.013 ^{***} (.192)	.014 ^{***} (.199)	-.004 (-.049)
가부장 아노미	.327 ^{**} (.103)	.341 ^{**} (.107)	.269 [*] (.087)	.347 ^{**} (.109)	.125 (.039)
가족유대		-.096 ^{**} (-.107)			
감시감독			-.055 (-.065)		
부모애착				-.095 ^{**} (-.106)	
비행친구 수					.526 ^{***} (.613)
N	656	656	615	656	651
수정된 R ²	.082	.091	.088	.091	.374

* p<.05, ** p<.01, *** p<.001, ()안은 표준화 계수.

6. 가부장가족 관련 변인들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정리

가부장가족 관련 변인들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로 ‘가부장가족: 직업’ 변인은 지위비행과 중비행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모의 감시감독을 통제했을 때 지위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사라지고, 비행친구 수를 통제했을 때 지위비행뿐만 아니라 중비행에 미치는 효과도 사라졌다. 두 번째로 ‘가부장가족: 학력’의 효과는 지위비행에서만 나타나고, 역시 비행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비행친구의 수를 통제했을 때 그 효과는 역시 사라졌다. 세 번째로 ‘부모의 가부장태도’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청소년 본인의 ‘가부장태도’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변인의 경우에도 부모의 감시감독과 비행친구 수를 통제했을 때 지위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사라졌다. 그러나 중비행의 경우에는 이 두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가부장태도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가부장 아노미’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과 중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지위비행 모형에서 부모의 감시감독과 비행친구 수를 각각 통제했을 때 그 효과가 사라졌고, 중비행의 경우는 비행친구 수를 통제했을 때 역시 그 효과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비행친구의 수가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가부장가족의 효과를 매개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권력통제이론에서 제시하듯이 부모의 감시감독을 통한 통제가 매개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일부 증거가 발견된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부장가족 관련변인들이 비행친구의 수와 부모의 감시감독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분석해 보았다.

7. 가부장 가족 관련 변인들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

일단 모든 가부장 가족 관련 변인들이 비행친구의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표 1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직업과 학력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가부장적 성격을 보이는 가정의 여자청소년들이 비행친구와 덜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청소년 본인이 가부장적 태도를 갖는 경우 역시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경향이 덜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평등가족의 경우, 혹은 여자청소년 본인이 성평등적 태도를 보일 경우 비행친구와의 접촉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부장 아노미를 경험하는 여자청소년이 비행친구와 더 접촉한다는 결과도 역시 확인된다.

이는 가부장적 분위기의 가정에서 성평등적 태도를 갖는 여자청소년은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탈출구로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표 15>는 부모의 직업에 근거할 때 가부장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정에서 여자청소년은 부모의 감시감독을 더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권력통제이론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설명과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하겠다. 한편 가부장적 태도를 갖는 여자청소년이 부모의 감시감독을 더 받는다는 결과가 모형 3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여자청소년이 가부장적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부모의 감시감독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학력으로 측정한 가부장가족 변인과 가부장 아노미 변인은 부모의 감시감독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비행친구 접촉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부모의 감시감독에 미치는 영향은 가부장가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시감독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표 14> 비행친구의 수에 미치는 가부장 가족 변인들의 효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 수	.668	.548	.707	.291
연 령	-.039 (-.033)	-.046 (-.039)	-.045 (-.038)	-.036 (-.030)
생활수준	.080 (.045)	.112 (.063)	.086 (.048)	.109 (.061)
학교성적	.036*** (.430)	.038*** (.449)	.036*** (.423)	.037*** (.439)
가부장: 직업	-.330*** (-.146)			
가부장: 학력		-.174*** (-.127)		
가부장태도			-.227*** (-.145)	
가부장 아노미				.384** (.105)
N	653	638	653	653
수정된 R ²	.232	.236	.236	.222

* p<.05, ** p<.01, *** p<.001, ()안은 표준화 계수.

〈표 15〉 부모의 감시감독에 미치는 가부장 가족 변인들의 효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1.450	1.666*	1.469	1.572*
연령	-.032 (-.028)	-.032 (-.028)	-.027 (-.023)	-.026 (-.023)
생활수준	-.187** (-.106)	-.219*** (-.125)	-.203** (-.115)	-.207** (-.117)
학교성적	-.022*** (-.277)	-.024*** (-.293)	-.022*** (-.277)	-.023*** (-.288)
가부장: 직업	.231** (.107)			
가부장: 학력		.092 (.070)		
가부장태도			.118* (.076)	
가부장 아노미				-.054 (-.015)
N	617	608	617	617
수정된 R^2	.111	.110	.105	.100

* $p < .05$, ** $p < .01$, *** $p < .001$, ()안은 표준화 계수.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부장가족은 여자청소년이 비행친구와 접촉할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여자청소년의 비행 정도를 낮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부장 아노미 상황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친구 접촉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여자청소년의 비행 정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부모의 직업에서 가부장적 성격을 보이는 가정의 여자청소년은 부모의 감시감독을 더 받기 때문에 비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석결과는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자청소년 스스로가 가부장적 태도를 사회화했을 경우 부모의 감시감독이 효과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비행을 덜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V. 맺는말

이상의 분석결과는 가부장가족의 효과가 우리나라 여자청소년 비행의 경우에도 대체로 권력통제이론이 예측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조적 차원에서 가부

장적 특징을 보이는 가정의 여자청소년은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서 가부장적인 가족은 지위비행과 중비행에서, 그리고 부모의 학력에서 가부장적인 가족은 지위비행에서 그러한 효과를 보였다. 부모의 가부장태도 자체로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러한 태도를 사회화하여 가부장태도를 보이는 여자청소년은 지위비행과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 연구는 발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가부장 아노미'라는 개념을 통해서 권력통제이론의 논리를 확장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가부장가족에서 성평등적 태도를 갖는 여자청소년은 지위비행과 중비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가부장 가족 관련 변인들이 주로 비행친구의 접촉을 통해서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 연구는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으로 측정된 가부장가족의 효과는 여자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감시감독을 매개하여 비행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분석결과도 보고하였다. 비행친구의 수와 부모의 감시감독 변인을 통제했을 때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일부 가부장 가족 변인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결과는, 해당 가부장 가족 관련 변인의 효과가 거의 전적으로 비행친구의 수와 감시감독 변인을 통해 매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권력통제이론이 상당 부분 우리나라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가부장 가족 관련 변인들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권력통제이론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이상적인 형태로 측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부모 직업의 측면에서 구성된 가부장가족 변인은 이론이 원래 상정한 평등가족과 가부장가족의 권력관계를 세밀하게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권력통제이론의 중요한 의의는 계급을 범죄와 비행의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끌어들었다는 점에 있다는 평가들에 비추어 볼 때(Jensen & Thompson 1990: 1010), 자료의 한계 상 부모의 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을 활용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중요한 한계일 것이다. 그리고 역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아버지의 통제와 어머니의 통제를 구분하여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점도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측정들의 효과가 권력통제이론의 예측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측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의 가부장태도 관련 문항들도 한계점 중 하나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아들과 딸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아들이나 딸만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해당 문항에 대해 어

떻게 답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전체 표본에서 해당 문항들의 결측은 한 개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 즉 아들이나 딸만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현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여 해당 문항들에 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권력통제이론이 심각하지 않은 비행은 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Hagan et al. 1985: 1161; 김정규 2005: 169), 가부장가족의 효과가 경비행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중비행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경미한 형태의 비행인 지위비행에서 그 효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여전히 권력통제이론의 예측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부모의 학력으로 측정된 가부장가족 변인의 경우 중비행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위비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비행에서보다 지위비행에서 모든 모형의 결정계수(R^2) 값이 크게 나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면의 한계 상 남자청소년과의 비교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 연구의 한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규. 2005. “권력과 통제 그리고 청소년 비행: 이론적 탐색과 비판.” 《형사정책》 17(2): 153-183.
- 김정규. 2009. “청소년비행 원인의 비교분석: 가부장적 요인과 성 차이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1(1): 159-188.
- 김준호. 1994. 《여자청소년 비행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07년, 자료번호: A1-1994-0007.
- 김준호·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 1999. “가부장적 가정과 청소년범죄의 성차이: 권력통제이론에 대한 보완적 논의 및 그 검증.” 《형사정책》 11: 207-234.
- 이성식·전신현. 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5): 173-198.
- 법무연수원. 200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 2009.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Adler, F. 1975. *Sisters in Crime: The Rise of the New Female Criminal*. New York: McGraw Hill.

- Agnew, R. 1985.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63(1): 151-167.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gnew, R. and H.R. White.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4): 475-499.
- Blackwell, B.S. 2000. "Perceived Sanction Threats, Gender, and Crime: A Test and Elaboration of Power-Control Theory." *Criminology* 38(2): 439-488.
- Grasmick, H.G., J. Hagan, B. S. Blackwell and B. J. Arneklev. 1996. "Risk Preferences and Patriarchy: Extending Power-Control Theory." *Social Forces* 75(1): 177-199.
- Hagan, J., A.R. Gillis and J. Simpson. 1985. "The Class Structure of Gender and Delinquency: Toward a Power-Control Theory of Common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1151-1178.
- Hagan, J., J. Simpson and A.R. Gillis. 1987. "Class in the Househol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4): 788-815.
- Hagan, J., A.R. Gillis and J. Simpson. 1990. "Clarifying and Extending Power-contro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4): 1024-1037.
- Hill, G.D. and M.P. Atkinson. 1988. "Gender, Familial Control,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6(1): 127-147.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ensen, G.F. and K. Thompson. 1990. "What's Class Got to Do with It? A Further Examination of Power-Contro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4): 1009-1023.
- McCarthy, B., J. Hagan and T.S. Woodward. 1999. "In the Company of Women: Structure and Agency in a Revised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7(4): 761-788.
- Morash, M. and M. Chesney-Lind. 1991. "A Reformulation and Partial Test of The Power Control Theory of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8(3): 347-377.
- Simon, R. 1975. *Women and Crime*. Lexington, MA: D.C. Heath.
- Singer, S.I. and M. Levine. 1988. "Power-Control Theory, Gender, and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with Addition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Peers." *Criminology* 26(4): 627-647.
- Sutherland, E.H. and D.R. Cressey. 1966.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